

뉴스 라운드업

- 미국 8월 CPI 헤드라인 +0.4%·근원 +0.3%로 시장 예상 상회, 9/15~16 FOMC 금리인상 반영 확률 67.5%→86.8%로 급등
-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한때 5%에 근접했다가 4.969%(+0.8bp) 마감, 뉴욕증시는 유가 급락 속 상승 마감(S&P500 +0.86%, 나스닥 +0.96%)하고 VIX -11.2% 급락
- 사우디 동서 송유관 주말 재공격에 TASI 일요일 -1.3%(4월 이후 최대 낙폭) 이를 연속 하락, 후티 반군의 예멘 페림섬 진출까지 겹치며 홍해발 원유 공급 리스크 확대
- 코스피(-1.76%)·닛케이(-1.93%) 등 아시아증시는 미 CPI 발표 이전에 마감된 전일 증가 기준 하락, 간밤 지표·중동 리스크 반영은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

미 CPI 서프라이즈로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사우디 재공급이 유가발 리스크를 다시 키웠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헤드라인 전월대비 0.4%, 근원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각각 0.4%, 0.2%)을 웃돌았다. 전년동월대비로도 헤드라인 3.4%, 근원 2.4%로 연준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9월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하루 만에 67.5%에서 86.8%까지 뛰었다. 국채시장은 즉각 반응해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5%에 근접(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했다가 소폭 되밀리며 4.969%(+0.8bp)로 마감했고, 2년물은 4.630%(+4.4bp)로 더 큰 폭 올랐다. 다만 뉴욕증시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는데(S&P500 +0.86%, 나스닥 +0.96%), 국제유가가 나흘 만의 고점에서 큰 폭(-2.37%, WTI 100.05 달러) 되밀린 데다 금리인상이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변동성지수(VIX)도 15.85로 하루 만에 11.2% 급락해 위험선호 심리가 되살아났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위험은 중동에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동서 송유관이 드론 공격으로 일시 가동 중단된 데 이어, 주말 사이 사우디 본토와 걸프 해역 선박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 벤치마크지수(TASI)가 일요일 하루에만 1.3% 급락(4월 이후 최대 낙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여기에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홍해 입구인 페림섬까지 진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우회도로 활용되던 홍해 항로마저 위협받는 새로운 지정학 리스크가 부상했다. 안전자산 선호도 함께 강화돼 금 가격은 4,347.52 달러로 0.62% 상승했다. 다만 자산표의 WTI 증가(100.05 달러)는 지난 금요일 뉴욕장 마감 기준으로, 주말 사이 벌어진 사우디 재공격과 후티 진출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디젤 인프라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미국 내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점도, 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긴장이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날 아시아 증시(코스피 -1.76%, 닛케이 -1.93%, CSI300 -0.84%, 항셍 -0.60%)는 모두 지난 금요일 미국 CPI 발표 이전, 즉 이번 주 초 사우디 첫 공격과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우려가 반영된 수치로 마감한 것이어서, 간밤 CPI 서프라이즈나 주말 중동 리스크 확산은 아직 가격에 담기지 않았다.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두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변동성 확대 여지가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독일 10년물 금리가 3.517%(+1.4bp)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월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9월 13일 공개된 유럽중앙은행(ECB) 인터뷰가 지난 10일 단행한 25bp 인상을 재량적 조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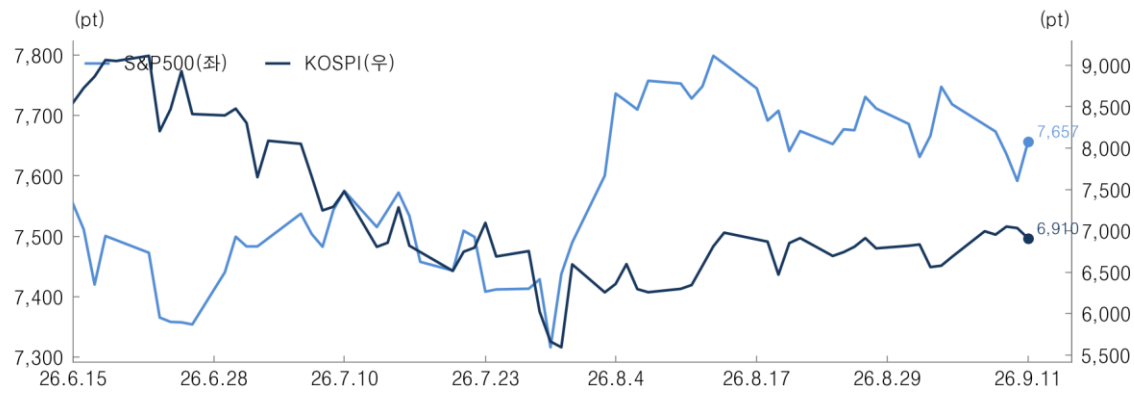
아닌 물가 목표 이탈에 대한 '의무적 대응'으로, 중동발 에너지 충격을 '장기 지속형' 리스크로 재규정한 점이 국채금리 강세를 더 굳혔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와 함께 주요국 장기금리가 좀처럼 매파적 극단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하우스 뷰와 궤를 같이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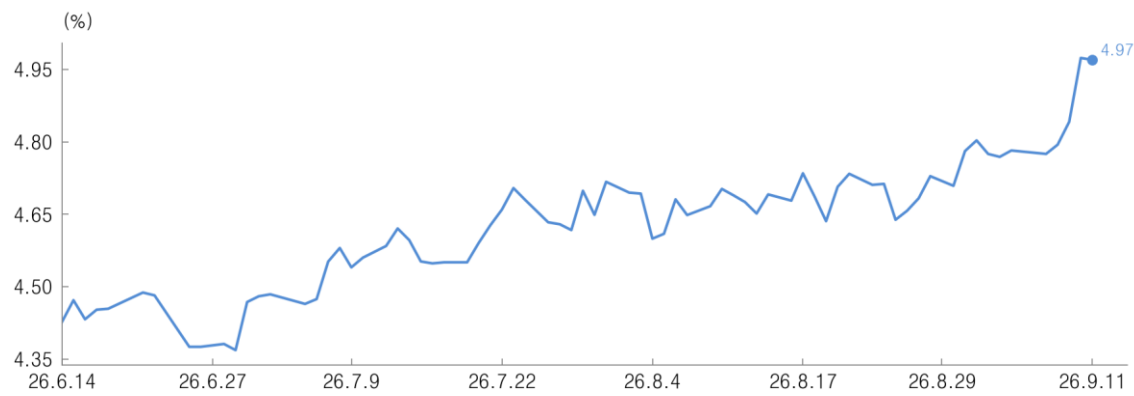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56.98	+0.86%	9/11 종가
	나스닥	26,333.04	+0.96%	9/11 종가
	STOXX 600	639.11	+0.49%	9/11 종가
	닛케이 225	64,011.12	-1.93%	9/11 종가
	CSI 300	4,510.16	-0.84%	9/11 종가
	KOSPI	6,909.91	-1.76%	9/11 종가
	항생	24,805.63	-0.60%	9/11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09	-	9/11 종가
	달러/엔	153.47	-0.62%	9/11 종가
	유로/달러	1.16	-0.03%	9/14 종가
	달러/원	1,344.15	+0.23%	9/14 종가
	달러/위안	6.71	-	9/14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969%	+0.8bp	9/11 종가
	미국 2 년	4.630%	+4.4bp	9/11 종가
	일본 10 년	2.987%	+6.4bp	9/11 종가
	독일 10 년	3.517%	+1.4bp	9/11 종가
	한국 10 년	4.571%	+11.6bp	9/11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0bp	-1.0bp	9/10 종가
원자재	WTI	100.05	-2.37%	9/11 종가
	금	4,347.52	+0.62%	9/11 종가
	구리	6.55	+0.01%	9/11 종가
변동성	VIX	15.85	-11.20%	9/11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11 건 HIGH	• 미국 CPI 가속·유가 급등에 연준 인상 기대 상승, 장기 채권수익률 수년 고점 근처 거래 ↳ 8월 소비자물가(CPI) 전월비 +0.4% 기록으로 인플레이 재가속, 다음주 연준 정책회의(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대 상향 ↳ 브렌트유 4개월 고점인 \$109.97/배럴까지 급등(현재 \$104 하단),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광범위 인플레이 파급 우려 촉발 ↳ 미국 국채 수익률 수년 고점 근처에서 보합, SNB(스위스 중앙은행) 의장이 '고유가발 금리 인상 파급 위험' 경고 • 글로벌 주식펀드 지난주 순유출 155.2억, 미국 중심 순유출 322.7억으로 3월 이후 최대 ↳ 미국 주식펀드 순유출 322.7억 기록, 유럽·아시아는 순유입(각 111.6억, 30.3억)으로 지역 간 심리 격차 확대 ↳ 인플레이·차입비용 상승 우려로 위험자산 회피 확대 ↳ 현물 금값 주간 누적 -3% 낙폭 기록, \$4,339.46/온스, 유가 후퇴로 인플레이 우려 일부 완화 반영 • 신시장 포트폴리오 8월 순유입 113억, 장기 채권수익률 고점에도 채무 수요 탄력 ↳ 8월 채무 순유입 112억(주식 +1억), 올 들어 누적 채무 순유입 2,429억 대비 주식 순유출 881억 ↳ 신흥유럽이 42억 순유입으로 지역별 최대, 고수익률 환경의 매력 입증 • 캐나다 2분기 가계부채/소득비율 175.1%로 상승, 고금리 압박 신호 ↳ 가계부채/소득비율 174.8%(1분기) → 175.1%(2분기), 국가 순자산 +1.0% 증가하며 C\$179.2조
미국 뉴스 79 건 HIGH	• 8월 근원 인플레이션 0.3% (예상 0.2%), 연준 9월 금리인상 확률 86~90% ↳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비 0.4% 상승(연 3.4%),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은 0.3% 상승으로 시장 예상(0.2%)을 크게 웃돌며 4월 이후 최대 상승폭 ↳ 시장이 다음주 정책회의(9/15~16)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86~90%로 평가 — 올해 첫 인상 ↳ 미시간대학 소비자심리지수 9월 47.8로 하락(8월 51.7, 예상 51.0), 휘발유 가격 급등과 무역 갈등이 향후 12개월 물가 상승 우려 자극 •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5% 근처, 2023년 10월 이후 최고 ↳ 인플레이션 재가속과 연준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채권 대량 매도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근처까지 상승 ↳ 글로벌 차입 비용(선진국 국채 수익률)이 수십년 최고 수준에서 움직이며 재무장관 베네통의 차입 비용 억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름 ↳ 전일 금리 시장은 CPI 발표 후 채권 가격이 기술적 반등하며 일부 안도감 형성 • S&P 500 +0.86%, 나스닥 +0.96% — AI 하드웨어 주가 일제 상승 ↳ 미국 증시는 유가 일부 진정·강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호재로 평가되며 상승 마감(S&P 500 +0.86%, 나스닥 +0.96%, 다우 +0.98%) ↳ AI 서버 제조사 델(Dell) +11~12% 사상최고가 달성,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

권역	요약
	+10~12%, HP +6.5~8.4%(오라클 분기 실적 호조가 배경) ↳ 다만 채권 수익률 급등은 최근 주가 랠리의 취약점으로 평가(고금리는 주식 평가액 압박 요인) • 달러, 유로·스위스프랑 대비 3 주 연속 강세 ↳ 인플레이션 가속·연준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 선호도 상승으로 유로, 스위스프랑 대비 강세 지속(3 주 연속) ↳ 다만 이란 지정학적 불안으로 유가 급등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달러 강세를 일부 제약 • 홍해 분쟁 심화로 사우디 석유 수출 경로 위협, 유가 배럴당 \$100 돌파(주간 +8%) ↳ 이란 연계 후티 무장단이 예멘 페림 섬 점령으로 홍해 입구 통제, 호르무즈 해협 우회 시 사우디의 대체 석유 수출 루트 마비 위협 ↳ 트럼프 대통령, 사우디 동-서 석유수송관 공격 책임을 이란으로 지목하되 '아마도'라 신중하게 표현, 호르무즈 우회 경로 마비 우려 시사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디젤 시설 공격도 유가 지탱 중, 트럼프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격 중단 촉구하며 '러시아 디젤 부족이 세계 경제 해치고 있다'고 주장
유럽 뉴스 24 건 HIGH	• ECB 금리 인상, 유로존 채권·영국 gilt 주간 큰 낙폭 기록 ↳ ECB, 지난 목요일(9 월 11 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 결정하며 시장 예상대로 진행 ↳ 독일 2 년물 국채 수익률 3.208%까지 상승, 2023 년 10 월 이후 최고수준 ↳ 영국 2 년물 gilt 수익률 목요일 +16bp 급등 후 금요일 -7bp 회복하면서 4.81% 마감 • 에너지 급등에 ECB 성장 위험 우려 제기, 유럽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 신호 강화 ↳ ECB 정책위 마홀루프: 중동 분쟁 장기화 시 인플레이 고착 위험 높으나 금리를 '상당히 더'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 훼손 가능 ↳ ECB 수석이코노미스트 레인: 에너지가격 지속 상승 시 가솔 소비 타격 우려하며 현재 임금 상승은 제한적 평가 ↳ SNB 솔레펠 '금리를 둘러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발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 코허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근처 유지 시 ECB 추가 인상 필요'라고 언급하며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 • 영국 GDP 호조에도 시장의 BoE 금리 인상 기대는 컨센서스보다 공격적 ↳ 영국 7 월 GDP +0.4% 기록, 예상(0%) 상회하며 파운드 강세(GBP/EUR 0.8580) ↳ 금융시장은 BoE 가 11 월부터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가격에 반영(1y1y OIS 4.80%), 로이터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2027 년 2 분기까지 현상 유지 예상 ↳ 상품가격 상승에도 BoE 정책위원들 긴축 신호 회피 중인 만큼 시장 평가가 과할 우려 • 유럽 주식, 인플레이 우려·채권 수익률 상승에 주간 낙폭 2 개월 최악 ↳ STOXX 600 금요일 +0.5% 마감했으나 주간 낙폭 2 개월 최악 기록 ↳ 프랑스 성장 전망 하향하며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불가능 공식화 • 이탈리아, ECB 금리 인상기 공격채무 관리 강조하며 성장 전망 상향 ↳ 이탈리아 경제장관 지오르제티: 금리 인상 국면에서 공격채무 통제와 시장·예금자 신뢰 확보 중요 ↳ 총리 멜로니, 2026 년 성장률 1% 전망(정부 4 월 예상 0.6%에서 상향) • 독일 기업 중국 투자 확대, 미국 투자 축소로 투자 편차 심화 ↳ 독일 기업, 2026 년 상반기 중국 투자를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억 증가 기록 ↳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급감

권역	요약
	- 독일 경제연구소: 독일 기업이 중국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 스웨덴 총선, 극우정당 정부 진입 가능성 제기 - 어제(일요일) 총선 실시했으며 여론조사상 중도좌파 야당 소폭 앞서나 우파 지지도 강화 중 - 우파 승리 시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처음으로 정부에 입각할 전망
인도 뉴스 25 건 HIGH	• 인도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 \$7,857 억 달성, 10 주 연속 증가세 9 월 4 일 기준 전주대비 \$450 억 증가, 정부의 할인 헤징 정책 등 달러 유입 장려에 따른 자본 유입 가속 6 월 말(\$6,670 억) 대비 약 \$1,200 억 누적 증가(6 월 정부 달러 유입 정책 시행 이후) • 인도 증시 5 주 연속 하락, 중동 분쟁·유가 급등이 주요 압박 - Nifty 50 주간 -2%, 5 주 누적 -4.8% / BSE Sensex 주간 -0.16%, 5 주 연속 약세 기록 - 중동 해운로 공격으로 브렌트유 주간 +7.5% 상승(\$103~110),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16 개 섹터 중 14 개 약세, 소형주·중형주 지수도 동반 하락 • 루피 주간 -1.1% 약세, 5 월 중순 이후 최악의 낙폭 - 현재 95.55 수준으로 4 일 연속 하락 기록 5 월 중순 유가 급등 당시 기록한 사상 최저치 96.96 근처까지 약세 재현, 중앙은행 개입으로 낙폭 제한 중 • 인도 10 년물 국채 수익률 7% 돌파, 6 월 정책 효과 반납 - 유가 상승(브렌트유 \$103~110)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약세 유도, 중동 해운로 공격 우려로 공급 차질 가능성 가중 6 월 중앙은행의 달러 유입 정책으로 낮아졌던 수익률이 다시 상승, 정책 효과의 일부 상쇄 • 인도 중앙은행, \$104.7 억 규모 공개시장채권매각으로 유동성 흡수 강화 9 월 16 일부터 2 주간 1 조 루피 규모 채권 매각 시행(첫 주 5,000 억 루피) - 은행권 유동성 잉여 10.49 조 루피 상황에서 강화된 조치, 중앙은행 증채는 채권매각·환율스압 등 모든 도구 검토 중임을 언급 • 모디-시진핑, 2020 국경 분쟁 이후 첫 본격 회담으로 경제 관계 개선 모색 - 토요일 BRICS 정상회담 전야 회동, 통상 연계·수송로 강화·무역 불균형 해소 합의 - 시진핑: '양국 무역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 • 모디-푸틴, 2 주 내 2 번째 회담으로 에너지·방위 협력 심화 - 중동·흑해 분쟁이 인도의 해운·선원 안전에 미치는 영향 협의, 인도의 다각 외교(미국·러시아·이란·중동 간 균형) 일환 • 모디, 이란 대통령과 회담에서 해상 항행의 자유·선원 안전 강조 - 모든 분쟁을 대화·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자유로운 무역로 보장과 해운 선원의 안전 강조 • BRICS 재정장관, 신흥국 경제 지분 확대 위해 IMF·세계은행 개혁 요구 -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기여도 증가하는데 제도 개혁 필요 강조, BRICS 의 일관된 우선순위로 제시
브라질	• 8 월 인플레이션 4 년 최대 낙폭 기록, 다음주 금리인하 공고화

권역	요약
뉴스 7 건 HIGH	- IPCIA 12 개월 누적 4.22% (7 월 4.44%, 시장 예상 4.27% 대비 하향) - 월간 -0.32%로 4 년 내 최대 낙폭, 식음료(-0.34%), 주택(-1.87%), 교통(-0.86%) 등 품목별 광범위한 가격 하락 • 대법원, Banco Master 사기 수사 기록 전격 공개 - Edson Fachin 대법관의 지난 금요일 수집액 달러 규모 은행권 사기 사건 수사 자료 공개(중앙은행 관리자, 정치인, 대법원 구성원 등 광범위한 연루) - 대통령 룰라의 전면 공개 지지, 현 선거 구도(룰라 대 플라비우 볼소나루)에서 양측 모두에 정치적 활용 가능성 • 중앙은행, 15 일 최대 10 억 달러 현물 경매·역양환 스왑 개최 9 월 15 일(화) 오전 9 시 20 분(지역시간) 현물 달러 경매(최대 \$ 10 억)와 역양환 스왑(2 만 계약) 동시 진행
EM 기타 뉴스 26 건 HIGH	• 사우디 주가지수, 파이프라인 공격 여파로 어제 1.3% 낙폭, 석유주 대폭 매도 - 지난 주중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동서부 파이프라인 일시 폐쇄, 일부 인명피해 발생 - 어제 추가 공격 후 TASI 1.3% 낙폭(4 월 초 이후 최대), Al Rajhi -1.2%, Saudi Mining -3.2%, Saudi Aramco -1.6%, Luberef -10% 폭락 • 예멘 후티군, 홍해 입구 페림 섬 장악으로 이란의 지정학적 우위 강화 - 지난 금요일 인근 두바브 해안도시도 함께 점령, 예멘 정부군 철수 - 홍해 통로 통제 능력 강화로 글로벌 해운·에너지 리스크 증대 •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급으로 인프라 약 \$100 억 피해, 해상봉쇄로 수출 \$400 억 위험 - 경제적 비용 GDP 의 약 1.5%p 규모, 예산 수입 목표 미달 중 - 일일 전쟁 비용 \$1.9 억 규모로 겨울 대비 경제 위기 심화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4% 유지 결정, 나빌올리나 총재 '금리 인하 여지 소진' 발언 - 지난 금요일 금리 결정 회의 시 금리 인하 논의 없음,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 검토하지 않음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격상승 가속화 인정, 물류망 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평가 2026 년 인플레이션 전망 6.0~7.0%, 국가 재보험사에 자본 주입 추진 • 러시아 8 월 소비자물가 월별 -0.08%, 연율 +6.33% 기록(시장 예상 부합) 7 월의 +0.54% 월별 상승에서 반전, 연율은 5.98%에서 6.33%로 상승 - 식품 -0.26%, 비식품 +0.53%, 서비스 부문 미상 • 러시아 7 월 무역흑자 \$135.9 억으로 전월 대비 확대 - 수출 \$450.1 억(6 월 \$432.4 억), 수입 \$314.2 억(6 월 \$309.2 억) • 이란 상선 어제 카시 섬 인근 피격, 1 명 사망 3 명 부상
중국 뉴스 2 건	• 베이징 기반 AI 개발사 Z.AI, 홍콩에서 \$50 억 규모 주식 공모·전환채권 발행 - 홍콩 신규 상장주식 \$20 억, 전환채권 \$30 억으로 구성 - 조성 자금은 AI 연산 인프라 확충·사업 확장·인수합병 등에 투입 예정 • 중국 금융부, 농업보험 확대로 농민 소득 안정화·식량안보 강화 추진 - 쌀·밀·옥수수·대두의 완전비용보험과 수확소득보험 확대 대상 - 면화·유지작물·설탕·고무 등 전략 농산물의 위험 보장 강화 포함

권역	요약
일본 뉴스 2 건	• 엔화 선물 투기자, 금리인상 기대로 약세 베팅 청산 ↳ CFTC 선물 데이터(9월 8일 기준 주간): 투기자 순 롱포지션 약 1 만 1 천 계약으로 전환(전주 순 숏 약 9 만 2 천), 2 월 이후 처음 ↳ 엔화 약세 베팅(숏) 약 9 만 2 천 계약에서 강세 베팅(롱) 약 1 만 1 천으로 약 10 만 계약 규모의 대규모 포지션 전환 ↳ 엔화는 9 월 들어 일본은행(BOJ) 금리인상 일정 가속화 기대감에 강세 추세 • 미쓰호 은행, 라디언트월드 신용거래 담보 송장 무효 논란 ↳ 6 월 철광석 거래사 라디언트월드에게 제공한 약 1 억 달러 신용거래, 담보로 제시된 송장이 거래처로부터 무효 주장 ↳ 은행의 신용관리 및 담보 실사 체계 강화의 필요성 부각
한국 뉴스 2 건	• 한국, 미국 투자 약속 3,500 억달러 세부사항 이번 주 초 확정 추진 ↳ 산업부 김정관 장관 어제(13 일) 미국 방문 귀국 후 발표 ↳ 이번 주 초 미국과 추가 협상 진행 ↳ 3,500 억달러 투자 약속 중 전략적 투자 2,000 억달러(연간 200 억달러)는 이미 합의됨, 전체 세부사항 최종 조율 단계
멕시코 뉴스 4 건	• 멕시코 7 월 산업생산 전월비 +0.5%, 연간 +2.7% ↳ 지난 금요일 통계청 발표 • 멕시코-미국 양자 무역협상, 미 중간선거 8 주 전 타결 목표 ↳ 캐나다 협상 결렬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임시 양자협정 체결 추진 ↳ 자동차·철강 관세 협상이 핵심
남미 기타 뉴스 1 건	• 페루-인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종 단계 진입, 2027 년 서명 목표 ↳ 페루가 인도에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응답 대기 중 ↳ 페루의 대인도 금 수출 주도로 인도가 2 위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미국 추월)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